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9일 월요일 (음 8월 11일)

제23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신북방 국제지방외교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2차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보그다넨코 연해주 부지사, 알렉세이 프데노프 부랴티아공화국 수반, 알렉산드르 레빈탈 유대인 자치주 주지사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전북의 매력' 발산

송하진 도지사,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가 도정 소개

미래 융복합 등 잠재력 각인... 농업·문화·재생에너지 등 교류분야도 제안

신북방 중심지에 있는 러시아 연해주를 공식 방문해 교류의향을 체결하는 등 신북방 국제지방외교에 시동을 건 전북도가 러시아 극동지역 자치단체장들에게 미래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전북의 강점과 매력을 집중 홍보, 러시아의 시선을 끌고모았다.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 국제교류단은 러시아 연해주 공식 방문 3일째인 지난 6일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농생명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탄소 등 융복합 미래신산업 등 전북 도정을 알리며 양지역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한·러지방협력 포럼'은 러시아 극

동지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가 모여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송 지사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지방정부 서밋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은 상호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간 협력과 공조에 지방정부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발전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과 농생명산

업, 탄소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통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도가 제안한 문화, 농업,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져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제 활성화, 동반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전북과 러시아 극동지역 교류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며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상호 경제협력을 위해 전라북도가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송 지사가 러시아 극동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강점 분야 및 상호 교류 가능분야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기도 해 전라북도를 러시아 극동지역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월 중국 강소성을 방문, 25주년 기념행사를 가져 실리외교의 교두보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7월에는 미국 방문을 통한 교류재개와 내실화를 꾀했고 이번 9월에도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를 위한 한·러 포럼에 참석하는 등 지방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광폭 외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7일 러시아 연해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전주 도심 허파, 바람길 숲 조성

전북도 내년 예산편성 투자 1순위

도민들 "산업·경제 분야"

복지·보건, 지역개발, 농업·농촌 등도 선호도 높아
 재원 부족시 대책으로 가용재원 범위내 재정운용이 37%

전북도가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 여론조사 결과, 도민은 가장 바라는 투자 분야로 산업·경제를 손꼽았다. 지역별로는 군산지역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도에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제여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복지·보건과 지역개발, 농업·농촌, 문화·관광, 환경·안전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예산편성 방향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대책(47.8%)이 모든 시군에 고르게 높았으며, 특히 군산지역(65.2%)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29.0%), 과학기술 R&D분야 지원 강화(13.5%), 금융산업육성 등 산업체질개선(9.8%)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41.4%)이 고르게 높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23.3%),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16.2%),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14.6%)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48.7%가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서남권, 동부권 4개 권역의 차별화된 균형발전 분야 우선투자를 희망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18.7%), 하천정비(16.5%), 세계질병리 성공개최를 위한 SOC 조기 구축(16.1%)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농민공익수당, 산지유통, 로컬푸드 등 농어업인 소득향상 기반확충(42.5%)이 고르게 높았고, 농어촌 과소화대책(25.0%), 스마트 농생명산업(24.6%), 해양수산분야(7.9%) 순으로 조사됐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특화된 관광거점지 육성(40.1%), 문화인프라확충(22.7%), 전북가야, 백제역사문화 보존관리(18.6%),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18.5%)순으로 조사됐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악취 및 생활폐기물 관리(40.4%)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익산, 남원 지역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31%), 생태관광지 육성(15.9%), 폭염 및 재난대응체계구축(1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든 응답이 74%였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68%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37%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재원 범위내 재정운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는 34.9%가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선택했다. /김진성 기자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10일까지... 6회까지 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34만 7866명 중 26만8776명(77.3%)이다. 이 중 학생부교과전형은 14만7345명(54.8%)이고, 비교과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8만5168명(31.7%) 등이다.

단, 수시지원 기회는 최대 6회로 제한된다. 또, 단 한군데 대학이라도

수시모집에 합격했을 경우 정시모집 지원 자격도 제한된다.

수시 지원 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원대학별 공통원서 항목을 확인한 후 추가입력 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입학전형료는 개별 또는 대행사별로 선택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원서접수 전에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